

## \*21세기와 문화 그리고 삶 33

## 위기의 책들

2005년에 미국에서 가장 인기를 끌었던 텔레비전 드라마는 '위기의 주부들'이었다. 위생처리된 듯이 깨끗한 한 중산층 동네에 비슷한 또래의 여섯 여자들이 산다. 어느 날 그 중의 한 명이 자살한다. 그런데 귀신이 이승을 떠나지 못하고 나머지 다섯 친구들의 삶을 지켜본다. 다섯은 다 착하면서 착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위선과 위악을 재미있게 버무린 작가와 감독의 솜씨에 감탄을 하며 보았지만, 자꾸 보니 제대로 된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보기가 싫어지고 말았다.

이 가을은 아무래도 위기의 계절인 모양이다. 난데없이 고려대학교 교수들이 '인문학의 위기' 선언을 하고 나섰다. 케케묵은 문제에 대해 갑자기 정색하고 위기를 선언하고 나서니 옳거나 하는 생각이 들기에 앞서서 의아한 생각이 든다. 왜 지금 뜬금없이 '인문학의 위기' 선언인가? 더욱이 고려대학교 교수라면 전국에서 최고의 대우를 받는 교수가 아닌가? 아무리 고려대학교라고 해도 인문학 분야는 역시 위기를 선언해야 할만큼 어려운가? 과연 인문학은 죽어가고 있는가?

만일 '인문학의 위기'가 인문학 관련 학과의 위기거나 인문학 관련 교수의 위기라면, 그런 위기는 고려대학교와 같은 서울의 우수 대학보다 지방의 군소 대학에 더 강력하게 몰아닥치고 있다. 아니, 이미 몰아닥쳐서 지방의 군소 대학에서는 인문학을 대표한다는 이른바 '문사철'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 사실상 한 곳도 없다시피 하다. 한국을 대표하는 동양철학자가 이미 5~6년 전부터 '문화기획'을 가르치고 있다. 나도 올해 '문화콘텐츠학과'를 만들어야 했다.

이렇게 지방 군소 대학의 '변신'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더니 고려대학교 교수들이 '인문학의 위기'를 선언하고 나서자 여기저기 파장이 일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보였을 뿐이었던 것 같다. 비슷한 주장이 이미 1990년대 초부터 제기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오히려 독일보다 철학과 졸업생이 네배나 더 많다는 식의 해묵은 비판이 다시 제기되었다. 인문학자들이 '위기의 주부들' 꼴이 된 것이다. 나아가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여 정말로 학생을 위한 대학으로 변모하고자 한다면, 인문학 관련 학과나 교수가 그렇게 많을 필요가 있느냐는 더욱 근원적인 비판도 제기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보니 자본주의의 위기에 관한 마르크스주의 안의 고전적 논쟁이 떠오른다. 칼 마르크스는 『자본론』에서 '과잉생산의 위기'를 주장했다. 무정부적 시장생산으로 말미암아 과잉생산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 상품이 남아돌아 결국 자본주의가 무너진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제자인 로자 룩셈부르크는



홍 성 태\*

\* 상지대학교 문화콘텐츠과 교수  
hongst3@sangji.ac.kr

시장이 좁아서 상품을 제대로 판매할 수 없어서 제국주의 침략으로 시장을 확대한다는 '과소소비의 위기'를 주장했다. 과잉생산과 과소소비는 동전의 양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불필요한 것이 과잉생산된다면 과소소비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인문학의 위기'는 어떤 위기일까? 과잉생산의 위기일까, 과소소비의 위기일까? 선언에 동참한 교수들은 아마도 과소소비의 위기를 주장하는 것 같다. 그러나 그 바탕에는 과잉생산의 문제가 자리잡고 있는 것은 아닐까? 대학의 교육이 교양교육 중심으로 이미 구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인문학을 촘촘하게 갈라서 학과를 만들고 전공인력을 기른다는 구조는 너무 낡은 것이다. 대학에서 익힌 지식과 기술로 평생 먹고살아야 하는 학생들에게 인문학의 하위분야를 전공으로 택하고 4년 동안 공부하라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가 아닐 수 없다.

교양으로서 인문학과 학문으로서 인문학을 엄밀히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학부에서 인문학은 이미 대체로 교양으로서 다루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학부의 무수한 인문학 관련 학과들을 적절히 통합하는 것이 오늘날 대학이 직면한 가장 중대한 구조조정의 과제일 것이다. 이와 함께 학문으로서 인문학은 당연히 대학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학부와의 관련이 지금보다는 훨씬 적은 인문학 대학원을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 물론 모든 대학교에서 이런 구조를 취할 필요는 없다. 아마도 교양으로서 인문학만을 운영하는 것이 적절한 대학교가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사실 오늘 내가 다루려는 주제는 '인문학의 위기'가 아니다. 그러나 나도 인문학 관련 공부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 괜히 얘기가 길어지고 말았다. 서

울의 우수 대학은 '인문학의 위기'를 선언이라도 하지 지방의 군소 대학은 생존을 위해 이미 오래 전부터 '인문학의 위기'를 실천하고 있다는 것만 다시 말하고 이 얘기는 여기서 이만 접겠다. 언제 기회가 된다면 '인문학의 위기'에 대해 좀더 분석적이고 성찰적으로 다루도록 하겠다.

물론 내가 다루고자 하는 주제가 '인문학의 위기'와 무관한 것은 아니다. 나는 '위기의 주부들'이 아니라 '위기의 책들'이라는 주제를 다루려고 하는데, 이 주제는 사실 '인문학의 위기'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그런데 어떤 일인지 '인문학의 위기'를 외치는 교수들 중에서 이 주제를 다룬 사람은 없는 것 같다. 또한 성실한 책평론가들조차 이 주제를 제대로 다루고 있지 않은 것 같다. 이 주제는 엉터리 번역이나 표절 저서, 조작된 베스트셀러, 지식수입 산업 등의 고질적 병폐와 연관된 것이면서 다소 구별되는 것이다. 그것은 '가짜 대중교양 번역서'의 출판이라는 문제이다.

책은 인문학의 상징과도 같다. 책이 없다면 인문학도 없다고 할 수 있다. 인문학은 책에 관한 학문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인문학 관련 학자라면 누구나 책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나는 '인문학의 위기'에 관한 최근의 논란을 들으면서 내가 몇 해 전부터 발견하고 깊은 우려를 안고 있던 '가짜 대중교양 번역서' 문제를 떠올리게 되었다. 오늘날 인문학은 학문보다는 교양으로서 더 대접받고 있지만, 사실 교양은 학문의 한 결과일 뿐이다. 이런 점에서 인문학이 발전하고, 한 사회의 교양이 더욱 깊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문으로서 인문학이 제대로 발전할 수 있어야 한다. 오펜을 피하기 위해 여기서 다시 강조하건대 학과로서

인문학과 학문으로서 인문학을 잘 구분해야 한다. 이러한 인문학의 발전을 위한 출판의 역할은 지대하다. 여기서 우리는 '가짜 대중교양 번역서'의 문제에 깊은 우려를 품어야 마땅하다.

'가짜 대중교양 번역서'란 본래 외국에서는 진지한 학문적 저서로 출간된 것을 이른바 '대중교양서'로 단장해서 번역출간하는 것을 가리킨다. 몇 해 전에 한 신문사에서 최초의 카스트로 평전이 출간되었다며 서평을 부탁해왔다. 그런데 번역출간된 책을 보니 수많은 인용문의 출처가 하나도 표시되어 있지 않고, 저자는 수많은 책과 자료를 인용했다고 했는데 단 하나의 참고문헌도 표시되어 있지 않았다. 주와 참고문헌을 모조리 없애 버렸던 것이다. 그 결과 미국사학회장을 역임한 학자의 오랜 연구 결과가 방대한 '표절물'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 책을 출간한 출판사는 현대 일본에 관한 흥미로운 연구서도 같은 방식으로 '대중교양서'로 탈바꿈시켰다. 지난 달부터 읽고 있는 세계의 유명 도시에 관한 번역서도 마찬가지다. 사회과학전문출판으로 시작해서 상당히 자리를 잡은 출판사에서 낸 재미있는 책인데, 어느 날 보니 주와 참고문헌을 모두 삭제해서 방대한 '표절물'을 만들어 놓았다.

무릇 모든 책은 다른 책들과의 대화다. 그런데 한국의 많은 출판사들이 '대중교양서'를 만든다며 극히 반인문학적 행태를 인문학에 대해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고 있다. 인문학 관련 학과가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인문학의 위기'를 보여주는 생생한 예라고 나는 생각한다. 여기서 사서들의 구실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가짜 대중교양 번역서'가 도서관으로 들어와서 '인문학의 위기'를 악화하는 사태를 막아야 한다. 심지어 이런 책들이

'상'을 타기도 한다. 한심한 일이다.

사서들이 이런 엉터리 책들의 목록을 만들어서 공표한다면, '인문학의 위기'는 한결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 '가짜 대중교양 번역서'가 사라지는 것 자체가 이 사회의 인문학적 발전을 보여주는 생생한 예일 것이므로, 사회의 인문학적 발전을 통해 '인문학의 위기'가 해결될 수 있는 길이 비로소 크게 열릴 것이므로, '위기의 책들'을 지키기 위한 사서들의 실천을 간곡히 호소한다. ㉞